

## 徐友漁씨등의 구속에 대해서—우리의 우려와 희망

양식 있는 중국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좋은 친구인 徐友漁(Xu Youyu) 씨를 비롯해 浦志強 (Pu Zhiqiang), 郝建 (Hao Jian), 胡石根 (Hu Shigen), 劉荻 (Liu Di), 姚文田 (Yao Wentian)씨등 중국의 양식 있는 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태를 주시하는 것과 동시에 깊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徐友漁씨등은 1989 년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중국 사회가 입은 깊은 심리적 외상을 위로하고 중국인이 다시 단결해 자신의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평화적인 지적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양심과 애국심에 기인하는 선량한 시도로 인해 그들의 신체나 생명이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웃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국가의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넘어서 물질적 풍부함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 존엄, 법아래의 평등을 향수할 권리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는 중국과 이웃나라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에게서 특성의 국가나 지역의 혼란을 조장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우리는 단지 가치관을 공유하는 친구로서 徐友漁씨등 중국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회의 새로운 발전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공존을 위해 계속해서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을 회구할 뿐이며 이 진지인 소원과 기원이 중국의 관계자 분들에게 닿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2014 년 5 월 13 일

鈴木賢 (홋카이도대학 법과연구과 교수)

遠藤乾 (홋카이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阿古智子 (동경대학 종합문화연구과 부교수)

의 158 명의 동아시아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서명